



교육신문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발행하는
교육 전문지입니다

이 달의 지면

- 02 사범대학/교육대학원 소식
- 03 교육과 이슈/교육단신
- 04 미래교육포럼/문화평
- 05 교육과 스승
- 06 교육과 세계/교육현장 노트
- 07 교육과 공동체
- 08 문화탐방

학사 일정

11월

- 2(화)~4(목)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 및 접수
- 10(수)~12.10(금)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 27(토) 2022학년도 전기 입학시험 시행

12월

- 10(금) 2021학년도 2학기 석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마감
- 8(수)~21(화) 2021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 17(금) 2022학년도 전기 입학시험 합격자 발표
- 22(수) 겨울방학 시작
- 25(토) 성탄절(공휴일)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독회원 등록

- 전 화 02-3290-1690
- 이메일 edunews@korea.ac.kr

- 발행인 김성일
- 주 간 김홍찬
- 간 사 문창원
- 발행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창 간 1971년 5월 10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교육신문

2021년 11월 5일(금)

The Korea University Education Monthly

제481호(월간)

■ 초점

경험학습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가꾸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김의욱입니다. 자원봉사는 몸으로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경험학습입니다. 정보화, 개인화, 전염병, 기후위기와 같은 큰 변화의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자원봉사센터는 새로운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인성형성, 생애전환을 위한 어른들의 사회적 역할찾기 등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 실천하는 자원봉사가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됩니다. 자원봉사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있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비전과 역할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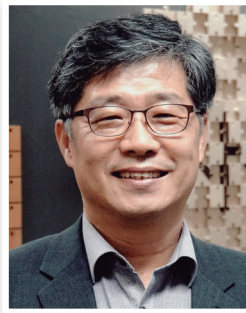
자원봉사센터는 모든 시민들이 공적인 역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2005년에 자원봉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서울시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모든 서울시민들이 서로서로 봉사하는 문화를 통해서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센터는 다양한 자원봉사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더 많은 시민들이 가까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입하고 촉진하는 방식으로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봉사환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지향하는 자원봉사의 가치란 무엇인가요?

자원봉사는 시민들이 공적인 과제에 주체로 참여하여 그 일의 주인이 되는 행위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learning to know),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learning to live together)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가지게 되고(learning to do),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장하는(learning to be) 시민사회를 이루는 토대를 만드는 일입니다.

■ 이웃 간의 거리두기가 뉴노멀이 된 위드코로나 시대에 자원봉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코로나가 잠시 지나가는 질병이 아니라 이제 우리 곁에 계속 남아있는 바이러스가 될 것이라면,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관계를 잠시 단절하고, 견디고 지나가지만 기다려서는 안 될 것입니



김의욱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다. 물리적인 거리두기가 마음의 거리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까운 이웃들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되지 않으려면 사회적 거리감이 생겨나고 있는 문화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일상회복의 자원봉사가 매우 중요한 분야가 됩니다. 사회적 단절과 고립, 배제와 불안이 습관으로 쌓이고 있는 우리의 일상을 새로운 공동체가 자라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은 실천을 꾸준히 하는 새로운 습(習)을 만드는 방식으로 자원봉사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 센터에서 현재 역점을 두고 있거나, 향후 계획 중이신 사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학교당국의 관리방식이 변화하면서 기존의 봉사활동도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부에 봉사활동을 기재하는 방식이 변경되었고, 학교 교과비중에서 비교과영역이 줄어들었으며, 2022 대입제도 개선 및 교육과정 개정 등이 적용되면 기존의 청소년 봉사활동은 급격하게 변화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청소년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과 단절, 그리고 심화되는 개인화를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봉사학습을 학교현장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봉사활동의 '기획-준비-실행-평가'의 과정과 학습성과를 청소년 학습자가 기록하고, 교사는 발달한 역량중심으로 기록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학교의 교과 또는 학생이 습득해야 하는 역량목표와 연계하는 등의 학습관리 방식을 통해서 봉사학습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구체화하여 시민성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학생봉사활동을 봉사학습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

제 시도광역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교육주체의 요구를 바탕으로 학교가 자율적인 봉사학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년이면 선후배를 만나지 못했던 대학생이 대학교의 절반을 넘어서게 됩니다. 사회성, 전인성, 시민성,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중요한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경험이 생략된 온라인 교육과정만으로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없습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대학생들의 사회봉사 경험학습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대학당국과 협력해서 청년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기후문제는 현재진행형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실천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활동의 생산성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제별로 자원봉사 참여 시간을 기록하는 타임뱅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클라우드 펀딩과 같이 자원봉사 시간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달성해 가는 협력을 통해서 목표를 이룹니다. 자원봉사 시간관리는 변화를 관리하는 시민들의 성장지표로도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민대학에서 자원봉사 대학원 과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시민실천의 오랜 내용이 시민지식으로 발전되고, 자원봉사 리더들의 연륜과 경험이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끝으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의 효과를 잘 살리는 방법으로서 '사회적 처방'이라는 접근법이 있습니다. 질병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어 건강한 사회인으로 회복하는 회복탄력성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지금, 교육과 실천을 융합하여 문제해결력을 키워주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생학습과 자원봉사를 결합하여 봉사활동 경험을 시민성장의 학습과 배움의 과정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다양한 교육기관과 융합하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시민대학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천과 배움의 선순환을 통하여 함께 성장하는 시민사회의 비전을 가꾸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NEW 수제생초콜릿 20,000원 (다크/밀차)

생크림과 초콜릿을 섞어 만든 부드러운 독특한 식감이 일품인 초콜릿



정통초콜릿 20,000원

100% 원액으로 만든 수제 가나슈 초콜릿



참쌀떡4구 10,000원

존독존독하고 맛있는 고대 참쌀떡

고대빵먹고 고대로GOGO!

수능합격 기원

오프라인

- 1호점 애기능생활관
02)3290-4065
- 2호점 하나스퀘어
02)3290-4066
- 3호점 국제관로비
02)3290-5028

온라인 (택배주문)

www.kubakery.co.kr

※ 택배 배송비 3,500원 별도

제주지역 (6,000원) / 산간지역 (4,000원)



QR코드를 스캔하여
접속하시면 더욱 많은 고대빵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래창의교육센터(‘KU Center of FINE’) 설립 위한 TF 회의 개최



지난 10월 1일(금), 운초우선교육관 206호에서 본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미래창의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TF(Task Force)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김성일 교육대학원장과 김홍찬 부원장을 비롯해 각 전공별 참

여 교수들이 참석했다. 미래창의교육센터 구성원인 교수 명단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이날 회의에서 센터의 이름은 ‘KU Center of FINE(Future Innovation for a New Education)’로 정해졌다.

〈미래창의교육센터 참여 교수 명단〉

이름	학과
김동중	수학교육과
김영호	지리교육과
김유범	국어교육과
노애경	영어교육과
박종훈	체육교육과
배다영	가정교육과
이보라	교육학과
정순일	역사교육과

* 순서는 가나다순.

회의를 주관한 김성일 교육대학원장은 기초연설에서 미래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데 비해 개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미래교육을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설립 목적은 첫째, 미래교육의 기능·역할·방향·목표를 정립하는 것이고 둘째, 교육개혁을 위한 각종 교육정책에 도움이 될 씽크 탱크(Think Tank)

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미래창의교육센터는 크게 세 분과로 구성된다. 우선 ‘미래교육 분과’에서는 미래교육의 방향·목표 등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미래 학습자 역량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방법과 AI 및 멀티미디어 등을 활용한 스마트 강의실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사 교육 분과’는 미래교육에서 교사 자질성에 기반한 교원양성 정책의 개선 방안을 탐구하고, 이를 토대로 교사 재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교사 재교육을 위한 교양과목·교직과정 등 교육과정 개편과 현장 연구자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해 연구한다. ‘교과교육 분과’는 통합교과·융합교과·협동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한다. 교과 선택권이냐 학점제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교사와의 팀 티칭이나 공동연구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미래창의교육센터는 △월례 세미나 △KU 미래교육 포럼 △사범대학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등의 사업을 운영하기로 결정되었다. 월례 세미나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각 분과별 연구를 위해 교원들과 초청된 전문가가 모여 진행되는 토론회이다.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열릴 KU 미래교육포럼은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미래교육 관련 강연을 듣고 토론하는 행사이다. 줌(Zoom) 회의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중계될 예정이며, 지난 10월 22일(금) 연재호 전 고려대 총장의 첫 강연이 진행되었다(4면 참조). 마지막으로 내년 10월 10일 사범대학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각 분과별 연구 성과에 대한 발표 및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장원 기자 creep0927@korea.ac.kr

2021학년도 2학기 제1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지난 10월 15일(금)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운초우선교육관 203호, 204호, 302호에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학기 제1차 실습이 시행되었다.

이번 실습을 위해 지난 9월 16일(목)부터 9월 24일(금)까지 고려대학교 포털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았다. 이 중 사범대학 학부생 및 교육대학

원 양성과정생으로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총 100명을 선발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출석 확인 전 발열 체크가 이루어졌으며, 실습 중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출결 확인에 이어 오후 5시부터 이론 교육을 1시간여 진행

한 후, 6시부터는 실습 교육을 2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실습생들은 강사의 안내에 따라 충격에 의한 신체 손상과 응급처치 방법을 배웠으며, 심폐소생술 및 자동 심장 충격기(AED) 사용법도 숙지하였다.

한편, 실습 이수자는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 1’을 근거로 한다.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학년도별로 1회, 졸업 전 총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021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은 오는 11월 6일(토)과 12월 3일(금)에 본교에서 2, 3차 진행되며 이외 협력기관(도봉구보건소)에서의 실습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박가현 기자 gahyun_park@korea.ac.kr

2021학년도 2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신청

오는 11월 15일(월) 오전 10시부터 11월 19일(금) 오후 11시까지 2021학년도 2학기 제3차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신청이 이루어진다.

대통령령 제24160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별표1]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 3항 관련) 『2. 성적과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에 따라 2013년 8월 졸업자부터 필히 적인성 검사에 응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신청은 교내 포털에 로그인한 후 ‘정보생활-교직사항-인성적성검사신청’에서 할 수 있다. 2021학년도 2학기 적인성검사 신청기간 및 검사일자는 아래 표와 같다.

신청인원에 따라 검사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검사시간은 신청한 순서대로 배

정되며 대기장소 및 응시시간 안내는 신청기간 종료 후 일주일 이내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검사는 인터넷 기반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교직 적성 및 인성에 관한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된다. 검사 응시 후 결과 확인까지는 약 한 달이 소요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검사 진행 중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시험실 내 거리두기를 위하여 각 차수별 타임당 인원은 20명 내외로 제한한다. 또한, 응시인원 선발은 해당학기 졸업예정자를 우선하여 진행한다.

한편, 적인성 검사는 학기별로 1회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직팀(02-3290-2390)으로 문의 할 수 있다.

서예향 기자 je_fragrance@korea.ac.kr

〈표〉신청기간 및 검사일자

차수	검사일자	시간(예정)	신청기간
1	2021.10.01(금)	17시~21시	2021.09.06(월) 10시 ~ 2021.09.10(금) 23시
2	2021.11.06(토)	09시~14시	2021.10.11(월) 10시 ~ 2021.10.15(금) 23시
3	2021.12.10(금)	17시~21시	2021.11.15(월) 10시 ~ 2021.11.19(금) 23시
4	2022.01.07(금)	14시~17시	2021.12.13(월) 10시 ~ 2021.12.17(금) 23시
5	2022.01.28(금)	14시~17시	2022.01.03(월) 10시 ~ 2022.01.07(금) 23시

제21기 교육경영 AMP 합숙 세미나

지난 10월 13일(수)부터 10월 15일(금)까지 제주도에서 ‘제21기 교육경영 AMP 합숙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이번 합숙 세미나에는 김성일 교육대학원장, 김홍찬 부원장, 양채진 담임, 그리고 교육경영 AMP 원우들이 참석하였다.

한편, 이번 합숙 세미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단체 일정이 생략되었다. 또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모듬별 친교 활동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모듬별 주요 일정으로는 제주 조천읍에 위치한 산굼부리

방문, 김녕항 요트투어 활동 등이 있었다. 원우들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한 채 매 활동에 임했으며 모든 활동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루어졌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21기 교육경영 AMP 원우들은 서로 깊은 친교를 나누는 한편, 앞으로도 교육경영 과정을 통해 전문 지식을 쌓고 돈독한 원우애를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합숙 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서예향 기자 je_fragrance@korea.ac.kr

2021학년도 2학기 종합시험 시행



지난 10월 8일(금) 18시부터 우당교양관과 운초우선교육관 등 33개 고사장에서 ‘2021학년도 2학기 종합시험’이 시행되었다. 시험은 총 세 과목으로 1교시에는 교직, 2교시에는 전공, 3교시에는 외국어 시험이 치러졌다.

이번 학기 종합시험을 신청한 인원은 총 379명이었으며,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및 문자 공지를 통해 코로

나19 바이러스 예방 지침을 전달하여 이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원칙적으로 시험 응시를 제한하였다. 응시자는 ‘종합시험 시행 당일 문진표’ 작성 후 제출, 발열 여부 확인 및 손 소독 후 고사장 입장, 시험 응시 중 마스크 항상 착용의 절차를 따랐다. 또한, 각 고사장 입실은 지정 시간 내에만 가

능하였으며, 각 고사장마다 응시자의 좌석을 지정하여 안전을 확보하였다.

석사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교직 과목, 전공 과목, 외국어 과목에 모두 합격해야 한다. 시험 성적이 70점 이상일 경우 합격이며 2014학년도 1학기부터는 전공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고 있다.

교직 및 전공 과목의 경우 2학기 이상 이수한 자(2학기 학적 및 성적이 완료된 학기 기준)이면서 12학점 이상, 평균평점 3.0 이상 취득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어 과목은 한문과 일본어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응시 자격은 1학기 이상 이수한 자(1학기 학적 및 성적이 완료된 학기 기준)이다.

2021학년도 2학기 종합시험 결과는 지난 10월 29일(금) 17시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edugrad.korea.ac.kr)를 통해서 공고되었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교육과 이슈

심각해지는 청소년의 혐오표현 ‘편견을 기반으로 차별을 넘어 폭력으로 진화 중’



김영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세계적인 이슈 중 하나는 난민 문제이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들은 해당 국민 간 심각한 갈등과 더불어 난민에 대한 인종차별 및 혐오 문제의 확대를 겪고 있다. 이는 영국의 EU 탈퇴 등 전통적 국가 간 관계와 질서 파괴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여성, 지역, 장애인, 성소수자, 소수인종, 타민족 등에 대해 대상 집단을 열등한 존재, 무가치한 사람, 위험하거나 오염된 집단으로 낙인찍고 차별해온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의식·무의식의 가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혐오표현은 이러한 편견과 차별을 사회적으로 나타내고 부추기는 행위이다. 더 나아가서는 혐오의 대상이나 집단에 대해 지속적인 차별을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 국가적·사회적 가치인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 문제는 비교적 최근에 아시아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로는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이 있다.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대표되는 여성 혐오 범죄가 발생한 후 미투 운동 등으로 사회적 반향을 가져왔다. 2020년

에는, 남성이었던 청소년이 성전환을 통해 법적으로 여성이 되었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해 여대에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의 재학생과 동문이 입학을 반대하는 서명 등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였다. 최근에는 예멘 난민 문제와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국민 간 갈등, 대구의 이슬람사원 건립에 대한 이슬람 혐오 등이 무차별적인 혐오표현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에 조사한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혐오피해 유형협자가 64.2%에 달하고 있다. 대상별 혐오표현 경험에서도 아동·청소년의 36.9%가 혐오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혐오표현의 조장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49.1%가 언론이 혐오표현을 조장하는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응답자의 87.2%가 혐오표현 대응 정책 중에서 ‘언론에서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이나 보도를 자제할 것’을 꼽았다. 언론이 혐오표현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해결 역시 언론이 해야 한다고 본 셈이다.

혐오표현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는 「제노사이드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을 통하여 민족·인종·종교에 대한 증오 또는 혐오의 표현을 법률로 금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국제연합(UN)은 ‘모든 형태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만인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함을 선언하고, 또한 특히 인종, 피부색 또는 출생지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하지 않고 동 선언에 언급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구나 향유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떠한 차별의 고무에 대해서도 법의 균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

이 있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08년 ‘형사법에 의한,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의 특정 형태 및 표현 방지에 관한 프레임 결정’에 따라 차별에 따른 처벌을 의무화하였다.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출신 국적 및 민족과 관련해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인 폭력과 증오 및 선동 등을 일삼는 행위를 형법상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영국의 「공공질서법(1986)」, 독일의 형법, 프랑스의 「언론법」과 형법 국사원령, 캐나다의 형법 등에서도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적으로 단일민족을 유지하고, 단일문화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적인 삶을 유지하였다. 이에 비하여 현대사회에 와서는 빠르게 개방화·다양화·다문화 현상이 도출되었다.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도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갈등의 출발은 편견과 차별 같은 혐오표현이라 볼 수 있다. 혐오표현 문제의 해악성은 표적 집단이나 해당 구성원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고, 사회적·공적 참여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표적 집단에 대한 적대적 사상을 확산시키고 공론을 왜곡하며, 차별을 공고화하여 불평등한 사회를 지속화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윤리적 가치형성 단계에 있는 청소년계층의 혐오문제는 청소년을 보호나 육성의 대상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는 문제이기도 하다. 청소년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혐오표현 행위의 빠른 확산 또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0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혐오표현에 대한 결과는 과거의 집단따돌림 현상에서 이제는 경제적 약자, 신체적 약자, 지역적 약자(지방, 보육원 등 시설출신), 소수인종

(고려인, 다문화가정, 이민자, 난민 등의 이주 배경 가정 등)에 대한 차별로 청소년계층 전반에 여과 없이 확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이 문제를 최소화하고 세계화 현상에 대한 관용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다. 해당 법의 제정을 통해 차별과 혐오표현이 옳지 않다는 사회적 윤리 기준을 세우고, 소수자에 대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할 것이다. 혐오표현에 대한 윤리기준이 생긴다면 당연한 수순으로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사인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 될 수 없기에,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교육과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위 법령과 조례 제정이 활성화될 수 있다.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는 혐오표현 확산의 경로와 수단이 되는 미디어 대응 방안이다. 온라인상의 쌍방향 소통에서 익명성으로 인해 빈발하고 있는 혐오표현이 특히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 혐오표현에 대한 미디어 대응 방안으로써 온라인 자율규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온라인 자율규제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수준의 AI 필터링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이며, 온라인 이용의 윤리적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확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갖춘 청소년이 혐오표현의 목격자가 되었을 때 동조자가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항 발화를 함으로써 미디어 환경의 자율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는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교육적 대응 방안이다. 학업성적 중심의 학교 문화와 질서, 나이와 서열을 중시하는 문화, 혐오표현이 정당하다는 잘못된 믿음 등이 혐오표현의 원인으로 제시되었으므로 교육을 통해 이러한 문화와 믿음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혐오표현의 피해 경험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 교육의 시기는 저연령층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사와 학생 전체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교육 차원의 청소년 혐오표현 예방 대응 가이드라인의 제작 보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혐오표현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혐오표현 피해자는 심리적·정서적 피해도 높은 확률로 경험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아직도 사회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가출, 폭력, 자살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용이하도록 학교 내 신고센터, 상담센터, 교육청 학생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익명의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청소년의 경우 성인보다 피해 강도가 강하고 지속적 영향력도 강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청소년이 혐오표현 피해를 겪으며 자책하거나 트라우마를 경험하지 않도록 상담체계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교육단신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전남교육청, 현장실습 사망사고 공동조사단 구성 및 후속조치 진행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은 지난 10월 10일(일) 여수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의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현장실습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등 후속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전국 사도교육청과 직업계고에 현장실습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전남교육청, 노동관서, 수사기관에 관련 현황 파악 등을 위해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다만, 본 공동조사는 사고원인 및 과실에 대한 여수 해경의 조사나 지방노동관서의 노동 관련 조사와는 별개로,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사항을 포함한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실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공동조사단에는 교육부, 교육청 관계자,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얻어 산업안전감독관 외에 공인노동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노동 및 현장실습 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매년 실시해왔던 현장실습 중앙단위 지도점검을 예정보다 앞당기고 고용노동부 등의 협조를 얻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유해위험요인 등을 집중 점검 및 지도할 예정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사도 교육청, 전문기관 단체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 10월 13일(수) 여수 추모의 집을 방문하여 故홍OO군을 추모하고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였다. 이후, 여수교육지원청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망사고 공동조사단의 당일 학교 조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조사 계획과 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조사사항에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운영, 현장실습 표준협약 체결 등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 따른 학교의 절차 이행 여부와 실습업체의 법령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번 조사가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며,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하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직업계고 현장실습과 관련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장실습 실시 전반에 걸쳐 보완해야 할 사항을 살펴, 고용노동부 등 여러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서예향 기자 je_fragrance@korea.ac.kr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 지도·점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 및 직업계고(특성학교·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현장실습 제도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하였다. 교육부·전남교육청·고용노동부(여수고용노동지청)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은 학교 및 사업체 조사, 자료 검토, 면담 등을 통해 사고 경위 및 현장실습 운영 지침 준수와 산업체의 안전 관리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현장실습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해당 사업체에 다수의 위반 및 미준수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학교에서도 현장실습 운영 지침상의 규정 미준수 사항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실체 파악을 위해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앞당겨 시행하고 그 대상을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사도교육감 및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현장실습 전반에 걸쳐 학교, 기업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였다. 산업체는 안전보건상 취약 기업을 우선 점검하고 학교는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지역산업기반 등 사도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사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현장실습 개선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기를 촉구하였다.

교육부는 예년의 경우 11, 12월에 걸쳐 한국공인노동사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과 함께 사도교육청·학교 대상 중앙단위 현장실습을 지도·점검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이를 앞당겨 지난 10월 말부터 조기 지도·점검을 시작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체 지도·점검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사도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에서는 현장에서 실습 규정과 지침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미준수 시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산업체 지도·점검에서는 현장실습생 실습과 관련된 안전보건 조치 여부, 자격이 필요한 유해·위험 작업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현장실습생 보호 및 중앙단위 지도·점검 활용을 위해 현장실습 중 부당대우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 ‘현장실습 신고센터’를 지난 10월 20일(수)부터 온라인 및 전화 운영하였다. 아울러,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는 현장실습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실습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개선점을 확인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을 거쳐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한 후 이에 따른 보완 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라며 “학생 안전을 위한 제도와 규정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박가현 기자 gahyun_park@korea.ac.kr

제3회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수상작 전시회 개최

교육부와 재단법인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은 지난 10월 5일(화)부터 ‘제3회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이하 그림일기대회)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그림일기대회는 재외동포 어린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겪은 일화나 느낌을 그림일기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조부모세대와의 교감·소통을 확대하고자 개최되어 왔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였다.

올해 그림일기대회는 지난 7월 5일(월)부터 9월 6일(월)까지 진행됐으며, 전 세계 43개국 재외동포 어린이 446명이 참가하였다. 미국에서 101명, 중국에서 82명, 호주에서 30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였으며, 이외의 국가에서는 30명 미만의 인원이 참가하였다. 시상 부문은 대상 1명, 이사장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5명, 인기상 3명, 특별상 2명으로 총 14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베트남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에서 참여하여 대상을 수상한 오윤우 어린이는 마음처럼 토박토박 써지지 않는 글자를 공책의 네모 칸 안에 안전하게 들어가 있지 않고 자꾸 탈출을 시도하는 지렁이와 달팽이에 비유하는 등 한글을 쓰면서 겪은 어려움을 재미있게 표현하였다.

이 외에도 한글을 잘 기억하기 위해 물건 또는 동물로 한글을 만들어 공부했던 경험, 외국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면서 자신이 세종대왕이 된 듯한 뿌듯함을 느꼈다는 사연 등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겪은 일화를 진솔하게 표현한 작품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교육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수상작을 감상할 수 있도록 그림일기대회 수상작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전시회는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누리집(https://11kefkids.kr)’을 통해 지난 10월 5일(화)부터 개최되었으며, 수상작과 더불어 교육부장관의 수상작 축하 메시지와 수상자의 인터뷰 영상이 게시되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 음식에 담긴 역사적 유래를 흥미롭게 소개하는 한국의 역사·문화 체험 영상도 제공한다.

아울러, 오프라인 전시는 10월 5일(화)에서 29일(금)까지 교육부(세종시 어진동 180 정부세종청사 14-2동) 1층 로비에서 감상할 수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그림일기대회를 통해 재외동포 어린이들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엿볼 수 있었다.”라며, “대회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미래교육 포럼

교육을 다시 생각한다: 고등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



지난 10월 22일(금) 오후 4시, 운조 우선교육관 206호에서 제1회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미래교육포럼이 진행되었다. 얼마 전 출범한 KU Center of FINE(Future Innocation for a New Education)의 주요 활동 중 하나인 미래교육포럼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미래교육에 대한 강연을 듣고, 토론을 통해 개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교육적 의의를 함께 고민하는데 목적을 둔다.

첫 번째 포럼에 초청된 연사는 본교 제19대 총장을 역임한 염재호 행정학과 명예교수였다. 염 교수는 ‘교육을 다시 생각한다: 고등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1시간 가량 강의를 진행했다. 해당 포럼에는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교원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사전 신청을 통한 줌(Zoom) 회의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공유되었다.

행사는 김매이 연구부학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본 강연에 앞서 김성일 교육대학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교육의 담론이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정작 전문적으로 용어를 천착하는 분석은 드물다.”는 진단과 함께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은 다른 아

닌 교육을 연구하는 학문 기관으로서 그 개념을 밝히고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앞으로 거시적·미시적 관점을 망라하는 다양한 분야 명사들의 강연을 통해 화두를 던지고 함께 그 상을 고민하는 미래교육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Ⅰ 한국 대학의 위기, 전환의 필요성

염 교수는 레이 커즈와일의 잘 알려진 문구, ‘특이점이 가까이 왔다(Singularity is Near).’를 인용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오늘날 사회의 각 영역은 대전환의 분기점을 통과하는 중이고 교육 역시 예외가 아니다.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지금 한국 대학이 맞고 있는 위기이다.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해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현재, 대학은 더 이상 ‘지식의 공급처’ 역할을 독점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지식이 ‘전달받는 것’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변화하고 있는 현실도 대학에 경각심을 요구한다. 이에 더해 급급하는 학령인구 지표는 이제 대학의 변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력하게 경고하

고 있다.

한편, 대학 교육을 불신하는 시장 역시 대학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대학 졸업자가 전체 인구의 10%에 미치지 못하던 60년대와 달리, 지금은 대학교 졸업장이 그리 큰 차별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나아가 학부 졸업자의 전문성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되기에 부족하다는 점, 따라서 재교육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 등은 이미 많은 기업에서 지적된 바 있다. 한국 대학이 오랫동안 전공교양 과목 중 전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 편제를 유지해 왔음에도 전문가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염 교수는 ‘지식’ 중심의 교육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즉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식’ 자체보다 이 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능력’이 중요한데 한국의 대학은 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처하지 않았다는 점이 위기의 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Ⅱ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과 ‘Liberal Arts’의 중요성

‘지식(전수)이 아닌 능력(생산)’으로 요약할 수 있는 미래교육의 새로운 과제에서 염 교수가 주목하는 건 ‘Liberal Arts’라는 개념이다. 한국에서 흔히 ‘교양’으로 통용되는 Liberal Arts는 대학과 인쇄술, 그리고 르네상스와 맞물려 기존의 종교적 역할을 깨고 근대적 전환을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개념은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다시 한 번 변화를 맞이한다. 즉 전인적 인간보다는 각 산업 분야에서 노동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간을 키우기 위한 교육에서 전

문성을 뒷받침하는 보조적 개념으로 그 지위가 격하된다. 한동안 이런 경향에 맞서 ‘인문학으로 돌아가자.’라는 표어가 대학과 기업 양쪽에서 지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염 교수가 보기에 그러한 주장은 여전히 Liberal Arts를 ‘능력’보다 ‘지식’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전환이라 볼 수 없다.

염 교수가 보기에 Liberal Arts는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보조적 개념이나 지식이기보다 학생이 자신의 전문성, 나아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파악하고 설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보다 근본적인 개념이 되어야 한다. 즉 지식이기보다 능력, 혹은 “지적(知的) 근육”인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고등교육기관인데, 전술했듯 한국의 대학은 이러한 현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선 학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체계보다 지식을 양적으로 많이 축적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에 더 중점을 두어 왔다. 또 학생들을 교육할 때에도 내재적 능력보다 형식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염 교수는 더 이상 대학의 이름이 학생들의 여생을 보장해 주지 않고, 인간의 삶을 고정시키기보다 유동적으로 만드는 유연화된 시장에서 인간이 스스로를 인식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본 근육’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Ⅲ 고등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몇 가지 방안

염 교수가 외국 대학 사례 등을 참고해 위와 같은 전환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강연을 마쳤다. 그 방안은 첫째, 학부 체제의 재정비이다. 이는 대학 편제를 학부 중심 교양

교육과 대학원 중심 전공교육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학부는 ‘Liberal Arts College’의 성격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전공보다 교양 교육을 통해 대학원에서 습득할 전문 지식을 활용할 지적 ‘능력’의 함양에 중점을 둔다. 이미 학부 융합전공이나 무학과제, 전공필수 과목 폐지 등의 형태로 시도되는 실험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한 체제이다.

둘째,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이다. 대학 기초연구력 강화를 위해 10조 엔의 대학 펀드를 조성한 일본처럼, 이미 미래 사회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감지한 몇몇 국가들은 대학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반면 얼마 전 발표된 OECD 교육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한국은 초·중등교육에 비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매우 적은 편이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고등교육이 국가 경제와 깊은 상관관계를 갖는 만큼, 정부 역시 위기 의식을 갖고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북아 대학 네트워크의 수립 및 활용이다. 대학 간 교류, 나아가 외국 대학과의 교류는 사고의 유연화 및 확장을 위해 필수적이며, 오늘날 각종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이를 가능케 하는 조건 역시 마련되어 있다. 한국의 대학들 역시 이와 같은 교류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었다거나 본래의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대학 간 네트워크의 수립은 교육 외적으로도 동북아 국가 간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염 교수의 결론이다.

문장원 기자 creep0927@korea.ac.kr



교육신문 문화평

조지 해리스 20주기 특집: 비틀즈의 역사 ③

영국의 침공(British Invasion)



케네디 공항에 도착한 비틀즈

© Rolling Stones

“비틀즈가 30분 전에 런던을 떠났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뉴욕을 향하는 중이군요. 비틀즈 주변의 기온은 32도입니다.” 1964년 2월 7일, 런던을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비틀즈의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오후 1시 35분, 만 명이 넘는 팬들이 운집해 케네디 공항에 막 도착한 비틀즈를 맞이했다. 이들 뒤 7,300만 명이 비틀즈가 출연한 에드 설리번 쇼를 시청했고 쇼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전역에서 10대 범죄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들의 첫 싱글 ‘Love Me Do’가 영국에서 발매된 지 약 16개월만의 일이었다. 비틀즈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불과 1년여 전인 1962년 10월 발매된 ‘Love Me Do’의 영국 차트 최고 순위는 17위였다. 멤버들은 다소 실망했지만, 한편으로 그들의 선택에 따른 귀결이기도 했다. 당시 흔치 않던 “모든 멤버가 노래하는 그룹”에 매료된 프로듀

서 조지 마틴이지만 첫 녹음 작업에서는 성공적 데뷔를 위해 다른 작곡가의 곡을 추천한 바 있었다. 그러나 비틀즈는 이를 거부했다. 머리 모양과 옷차림은 타협할 수 있지만 음악만큼은 자신들의 곡으로 성공해야 한다는 고집이 었다(실제로 비틀즈가 버린 이 곡은 다른 가수의 싱글로 1위를 차지했다). 머지않아 전 세계가 추앙할 레논/매카트니 콤비의 시작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다.

이 때 매니저 브라이언 엡스타인이 수완을 발휘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문 지면에 비틀즈를 소개하고 투어 일정을 잡았다. 투어에서 비중은 대체로 헬렌 사피로 등 당대 스타의 오프닝 밴드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브라이언의 홍보는 빠른 결실을 맺었고, 마침내 1963년 2월 두 번째 싱글 ‘Please Please Me’가 영국 차트 1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때까지도 영국의 주류 언론은 이들을 주목하지 않았는데, 비틀즈 전기 작가 헨터 데이비스에 따르면 “그런 일(리버풀 밴드가 런던 중심의 음악계에서 1위를 차지하는 일)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중, 특히 10대들의 반응은 점점 열기를 더해 갔고 연이어 발매된 ‘From Me To You’와 ‘She Loves You’까지 1위를 점령하게 된다.

이윽고 1963년 9월, 영국 차트에서 LP, EP, 싱글 각 부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밴드는 비틀즈였다. 이제 영국의 언론들은 비틀즈를 다룰 수밖에 없었지만, 팝 지면을 건너 뛰어 신문

1면이 할애되어야 했을 정도로 비틀즈의 신분 상승은 비약적이었다. 음악계에 새로운 아이돌의 등장은 낯선 현상이 아니지만, ‘비틀마니아(Beatlemania)’라는 초유의 사회적 현상이 영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10대들의 열광은 기성세대에게 ‘광기’로 비춰졌고, 이 현상을 분석하는 심리학자들의 기고가 연일 이어졌다. 의회는 비틀즈 공연을 위해 경찰 병력이 특별 동원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토론을 벌였고, 영국 국교회의 주교들도 편을 갈라 비틀즈의 유해성을 두고 논쟁을 벌였을 정도였다.

다만 음악계에서 아직 비틀즈는 아주 시끄러운 팬들이 따른다는 특이사항을 제외하면 신생 아이돌에 불과했다. 즉 이들의 성공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모·패션·언변·홍보에 비해 약소했고, 비틀즈는 10대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아이돌일지언정 평단의 인정을 받는 ‘뮤지션’은 아니었다. 어느덧 언론은 비틀즈의 위세가 언제 수그러들지 점치고 있었고, 비틀즈 멤버들 역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1964년 1월, 2개월간 차트 최상단을 수성하던 ‘She Loves You’가 데이브 클라크 파이프의 노래에 1위를 내어준 날, 《테일리 익스프레스》의 1면 헤드라인은 “토티엄 사운드가 비틀즈를 누른다.”였다.

그런데 바로 같은 날, ‘I Want To Hold Your Hand’가 미국 차트에 83위로 진입한다. 이미 브라이언은 이전 해 여름부터 미국 진출을 염

두에 두고 있었다. 다만 이미 시도한 1963년 초에 큰 반응을 얻지 못한 터라 신중을 기하고 있었는데, 영국의 열기가 미국으로 옮겨 불을 조짐이 포착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비틀즈 멤버들에게는 의구심이 앞섰다. 이들은 그때까지 영국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을 거둔 사례가 없다는 점, 심지어 클리프 리처드조차 실패했다는 점을 상기하며 고개를 가웃했다. 그러나 ‘I Want To Hold Your Hand’가 곧 1위를 차지하고, 연이어 ‘She Loves You’도 빠르게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 남아 있던 일말의 불안(조지 해리스는 비행기에서도 ‘미국엔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우리까지 필요할까요?’라고 물었다고 한다)는 케네디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일소되었다. 비틀즈는 팬들의 함성을 들으며 비로소 이 날이 출정식이 아닌 대관식의 날임을 이해했다. 미국 주간지 《라이프》는 비틀즈의 입국을 다룬 기사에서 “영국이 1776년 잃은 아메리카 식민지를 비틀즈가 되찾았다.”라고 논평했다. 이제 영국 신문에 기고하던 미국 심리학자들은 자국의 새로운 현상을 분석해야 했다. 이후 3년간, 비단 미국뿐 아니라 세계 어디든 비틀즈가 가는 곳에서 일어날 소요, 그리고 역사상 전쟁이 아닌 문화가 전 세계의 시선을 같은 곳으로 모은 첫 번째 사례가 될 ‘영국의 침공(British Invasion)’이 개전되는 순간이었다.

문장원 기자 creep0927@korea.ac.kr

교육과 스승

다양한 방법으로 예술과 삶을 잇는 박영주 선생님

이번 호 '교육과 스승'에서는 교육부와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관하는 '제10회 대한민국 스승상'을 수상하신 박영주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예술 전공 학생들의 막막한 진로 고민에 대해 함께 답을 찾아갈 뿐만 아니라, 그 실현 방향까지 적극적으로 제시해나가는 박영주 선생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영주
세종예술고등학교

I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와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살이 53년 차, 교직 경력 31년 차 박영주입니다. 행복한 우리 집에서는 과학교사 김동찬의 아내이자 26살 김경덕과 23살 김재한 의 엄마 역할을 맡고 있고, 즐거운 직장에서는 한국음악 전임교사이자 예술부장, 그리고 예다움학교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마시멜로교사봉사단' 단장 및 가야금연주단 '해봄'의 단장이기도 합니다.

II 선생님께서는 세종예술학교의 설립 멤버이자 오랜 시간 음악 교사로 근무해오셨지요. 예술 교육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 혹은 매력을 느끼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흥과 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중학교 때는 한국무용을 배웠고, 이를 계기로 고등학교 때는 가야금 동아리에 들어가서 가야금을 배우게 되었어요. 가야금연주에 매력을 느낀 저는 한 유명 대학 국악과에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국악대학 진학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에 진학하였지요.

1991년 첫 근무지인 섬마을 북도중학교에서의 교사 생활이 생각납니다. 전교생 30명인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전교생 풍물패를 만들어 섬마을 대소사에 신명나는 풍물놀이로 흥을 돋웠지요. 지금도 그 아이들의 눈빛과 마을 주민들의 흥겨운 모습을 잊을 수 없어요. 첫 학교에서의 감동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를 예술 교육에 몰입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III 작년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며 직접적인 교수학습이 어려웠을 텐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선생님께서는 진행하신 진로탐색 수업이 무척 색다르고 흥미로웠습니다.

2020학년도에 음악과 2학년 담임

을 맡게 되었습니다. 담임을 배정받은 후, 30년 교직 생활의 마지막 담임이라 생각하고는 학생들에게 좀 더 특별한 진로 설계 지도를 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겨울방학 내내 새 학기 준비를 했지요.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갑작스레 번지면서 결국 학교는 개학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원격수업체제로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 학생들에겐 등교 개학보다 많은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음악 본연의 직업, 음악을 이용한 직업, 음악과 관련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 그리고 은퇴 후 제2의 삶을 위한 직업, 총 네 가지의 직업적 분류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은 여러 자료를 찾으며 자신의 삶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온라인 양방향 플랫폼을 이용해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지요. 저는 우리 반 학생들 한명 한명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겨우 18살 아이들인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날 교사로서, 어른으로서 주입식 교육 위주의 일방적인 소통만 해오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했지요. 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부터는 일대일 개인 컨설팅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예술대학 졸업 후 맞이하게 될, 어떻게 보면 다소 막연한 진로에 대해 미리 탐색하고 스스로 성장기획안을 쓰도록 하여 이를 정리한 도서 『세종예술고 2학년 음악과 학생들에게 음악을 묻다』를 출판하였습니다.

IV 선생님께서 창립하신 '예다움학교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보편적인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술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예술가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술가가 으레 그렇듯 대부분 프리랜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마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기로 일거리가 많이들 끊겼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예술을 전공하게 될 우리 학교 학생들도 대학 졸업 이후 비슷한 위기를 맞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무엇인가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주고 싶었어요. 이러한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것이 '예다움학교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사업의 주된 내용은 학생들의 전공을 살린 다양한 예술 활동으로 지역과 학교들에게 예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시로는 음악공연, 디자인 상품 제작, 스트리밍 촬영 및 영



상 제작 등이 있어요. 협동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계약서 작성 후 최저시급에 준하는 임금(시간당 9,000원)을 받으며, 계약서 작성법과 근로 임금법 등 예술가에게 필요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전공실기력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지요.

협동조합은 저에게 있어 무겁지만 보물이 가득 들어있는 가방입니다.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협동조합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큼니다. 하지만 학교 곳곳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조합원을 만나 소통하다 보면 정말 귀한 보물들이 곳곳에 가득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I 제자들과 함께 만든 가야금연주단 '해봄'의 단장님이시지요. 연주단을 만든 계기와 연주단을 통해 무엇을 교육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제자들 대부분이 예술고, 예술대학 졸업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래서 충남예술고, 세종예술고를 졸업한 가야금전공 제자 20명을 모아서 2020년 11월에 가야금연주단 '해봄'을 창단했어요. 이후 작은 축제나 음악회에 참가해서 받은 연주비를 모아 지난 8월 31일 창단연주회를 했지요. 스무 명의 제자들과 함께 무대를 꽉 채우는 경험을 하니 교사로서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듯이 '해봄'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가야금연주를 들려주고 싶어요. 또, 이를 통해 제자들이 연주자로서 무대에 서고 경제적인 생활도 영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II 선생님께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봉사자로서의 정체성도 갖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큰아들이 태어나고 10개월 되던

차, 아이에게 중복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부터 제 삶은 절망이었지요. 하지만 2004년 근무하던 봉황중학교에서 봉사의 대가이신 현정호 선생님을 만났고, 선생님이 '함께 봉사하자'라고 하셔서 음악봉사단을 만들어 매주 토요일마다 학생들과 봉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는 동안 제게도 가족사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렇게 봉황중학교 선생님들과 뜻을 모아 '마시멜로교사봉사단'을 만들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전까지 10여 년 동안 매주 장애인 생활시설 동아리 활동을 지도해왔어요. 지금은 매주 반찬을 만들어 보내고 있고요. 누군가 제게 봉사하는 이유에 관해 물어보면 저는 '장애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라 대답해요. '장애 에너지'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에너지예요. 저도 덩달아 열심히 살 힘이 생기지요.

III 끝으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 당부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요즘 청년들은 대부분 '해야 할 것'에 얽매어 산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청년들이, 취업에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하고 싶은 것'을 즐기며 살았으면 해요. 또, 복잡한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견고히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멘탈을 강하게 만들라고도 하고 싶고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측은지심을 가졌으면 해요. 사람의 삶은 주변을 살피며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그저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삶을 멘토링할 수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길 바라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생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시고 함께 더불어 사는 멋진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서예향 기자 je_fragrance@korea.ac.kr



교육과 세계

이슬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행정 박사수로

※ 필자 요청으로 사진을 게재하지 않음.

정책을 위하여 유사 학교 유형의 사례를 가지고 있는 주요 국가 중 미국과 호주의 통합운영학교 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통합운영학교의 제도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필자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소속이며, 교육 정책 전문가인 한유경 교수님과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육정책 박사과정 중인 이연우 선생님과 함께 ‘한국, 미국, 호주의 통합운영학교 관련 정책국제 비교 연구: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를 사례연구로 탐색하였다.

미국과 호주는 우리나라와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다양한 학교제도 중 하나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통합운영학교가 어떤 교육적 가치와 사회 맥락적 특수성을 가지고 설립되어 운영되었는지 살펴 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미국의 학교 제도는 50개 주정부와 14,000개 이상의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어 학년 구성이 매우 다양하며, 이를 하나의 유형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다만, 미 국립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 NCES)는 학교 유형을 초등학교, 중등학교, 통합운영학교(combined school)로 분류하고 있다. NCES에 따르면 2017-2018년 기준 미국 전역에 설립된 공립학교 중 통합운영학교는 전체의 약 6.4%에 해당된다.

미국에서는 최근 20년 동안 학교 규모 및 학년 구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며, 학생의 학습과 성장의 교육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교육의 쟁점과 교육의 질 제고 측면에서 통합운영학교가 제안되었다. 특히, 청소년기에 초등학교에서 중등으로 학교급을 전환하는 환경적 배경은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학업성취도 저하의 우려 속에서 통합운영학교

로의 전환이 대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정부에 있어 자치적이고 지방분권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역 교육구(school district)에 따라 통합운영학교의 형태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에서 살펴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교육구에선 2000년대 초반 이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한 K-8 학교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지역 교육구의 최고경영자의 정책을 실현하고, 개혁을 위한 노력으로 K-8 학교 전환이 시작되었다. 현재 민간 교육경영기관(Education Management Organization, EMO)이 학교 경영 및 관리에 참여하며 학생 학업 성취도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교육 정책 수요자이자 학교 선택권을 가진 학부모의 교육소비자 개념이 강조되면서 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 학교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K-8 학교 운영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농촌 인구 감소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통합운영학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호주의 학교 제도는 공립학교와 비공립학교로 구분되며 비공립학교는 카톨릭학교와 사립학교로 나뉘게 된다. 호주 교육법(Education Act 1990)에서는 통합운영학교를 정규학교제도로 초등학교와 중등교육을 함께 운영하는 학교로 분류하며, 통계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서도 통합운영학교를 학교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통합운영학교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전체 인구의 약 92%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도시화가 심한 호주는 지역 간 교육 수준의 격차가 심해져 지역 간 교

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하였다. 한 교실 학교(one class school), K-2학교, 복합 교실(composite class), 통합운영학교 등과 같이 학교의 종류를 다양화하였다.

특히,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가 높아 2010년을 전후로 많은 소규모학교가 통합운영학교로 전환을 시작하였다. 정부는 통합운영학교의 내실화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육프로젝트(Country Education Project)의 일환으로 통합운영학교 현황과 실태를 확인하고 주정부 차원에서 통합운영학교 정책(Central School Policy), 통합운영학교 연합(Central Schools Alliance)을 구축하여 노력하고 있다.

호주는 통합운영학교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만, 교사원법(Institute of Teacher Act, 2004)에 따라 초·중등 교사자격기준이 독립되어 있다. 분리된 교사양성과정으로 통합운영학교 운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교장 리더십 프로그램(Teach for Australia, TFA)과 호주 교육 및 학교 리더십 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for Teaching and School Leadership, AITSL)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교장리더십에 집중하고 있다. 위의 프로그램은 농어촌 교장 연수 및 프로그램에 맞추어져 통합운영학교로 한정지어 볼 수 없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고 용이하게 관리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뉴사우스웨일즈 주 교사 통합운영학교 위원회(Central Schools Committee)를 운영하고 있다.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교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공교육의 본질을 우선시하여 교원, 학생, 지역사회 협력 등의

방안을 제안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이러한 호주의 통합운영학교는 인구학적 측면의 변화에 조응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극복하고, 도·농간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복지 차원의 제도 변화이다.

이로써 각 국가의 사회·환경적 맥락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의 정책 변화를 이해하며 우리나라 통합운영학교의 제도 개선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통합운영학교는 미국에서 교육구에 따라 다양한 구성이 가능한 교육 자치의 기능을 가진다. 호주도 교육법에 학교 유형으로 정의되어 있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이처럼 초·중등교육법에 통합운영학교를 학교의 종류로 법제화하고 통합운영학교 관련 교육부, 교육청의 조직을 통일하여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과 호주는 정책수혜자의 긍정적 인식과 운영을 바탕으로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정책 추진 속도가 높다. 이처럼 교육의 질 향상 측면에서 정책수혜자인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을 포용하며 통합운영학교의 가치와 필요성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하여 교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교원 인력 배치, 근무 교원 인센티브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합운영학교는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학교 형태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통합운영학교는 학교급 간 경계를 허물고 유연한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또,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고 궁극적으로 학생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학교를 준비하며 국제적 비교가 학교교육 체제 변화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교육현장 노트



신혜진

상당심리교육전공/동구여자중학교

종알이 여기저기서 날아오고 폭탄이 터진다. 북소리 나팔소리가 들려온다. 점심시간이라도 되면 코뿔소 떼가 우르르 지나간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료 교사들과의 전우애는 끈끈해지고 퇴근 시간마다 이마의 땀을 닦아낸다. ‘휴, 오늘 하루도 무사히.’ 학기 말이 되면 우리

는 모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졸비가 되어가고 방학이 끝나면 개학증후군이 살짝 보이기 는 하지만 그래도 배터리는 만땅으로 충전해서 다시 돌아온다. 배터리가 한 학기가 끝나기 전에 방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것이 서툴기만 했던 꼬꼬마 새내기 교사 시절 교직 사회에 먼저 와 계셨던 선배님들은 모두 슈퍼맨이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으나 나는 젊고 패기 넘치는 신입 교사였다. 수련회, 체육대회, 학교 축제 등 큼직큼직한 행사들과 각종 야외 체험학습 등 소소한 일정들을 소화해내며 학교와 점점 하나가 되어갔다. 지치고 힘든 날도 있었다. 학교 폭력 판결에 따른 아이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눈물로 지새운 날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과 눈 맞추고 이야기 나누고 수업하는 모든 나날이 꿈만 같았다. 일종의 하니문 시기라고 할까 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두 번째 해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그러던 내게도 위기가 찾아왔다. 지면에 미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사연이 참 많은 아이의 답임을 맡게 되었다. 중학생이 이 많은 문제를 떠안고 있다는 것에 신이 참 야속하게 느껴졌다. 나는 정성을 다해 그 아이를 보살폈지만 아이는 결국 우리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저

그 아이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아야 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너무나 무기력했다. 교사로서의 한계가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난 그 아이가 떠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내가 너를 걱정한다. 아낀다. 생각한다. 사랑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 줄 뿐이었다. 진심은 통한다던데 그 아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내가 그녀를 바라보던 눈빛을 기억해주었으면 좋겠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절대로 마주치지 않고 싶은 순간들도 불청객처럼 불쑥 찾아온다. 사건 사고들도 찾아오지만, 우울, 분노,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불쑥 허락도 없이 찾아온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들을 거부하고 문전박대 한다. ‘나는 너를 원치 않아. 내 인생에서, 내 마음에서 나가줄래?’ 왜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냐며 분노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런 감정들을 억압하거나 외면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삶의 흐름과 감정들을 거부하고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거미줄에 걸린 곤충마냥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 더욱 옥죄어진다. 눈에 빠진 사람마냥 온 힘을 다해 저항하는 만큼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든다.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마음은 더 힘들어지고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

하게 된다.

그런데 사실 살다가 마주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 사고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불청객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사건 사고들을 탐탁지 않게 여기지만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다. 지금 당장 근시안적으로 보았을 때 안 좋은 일이 먼 훗날 훌륭한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세상 모든 만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장단점이 포함되어 있기에 이 일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인생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이해하고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고통 뒤에는 지혜도 따라올 것이라고 믿는 수밖에. 감정도 마찬가지로 슬픔과 우울, 분노 등도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오는 감정들이다. 이들을 거부하며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안녕, 또 왔니?’ 놀다 가렴~’하고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 감정들은 자신의 몫을 다하고는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순순히 받아들이고자 한다.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평온함과 어찌할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오늘 밤도 이렇게 기도할 뿐이다. 학생들의 평온과 안위를 위해서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묵묵히 해 나갈 것이다.

수용할 수 있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용기

학교현장 탐방

세계를 향하는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및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대덕중학교



정현주
대덕중학교 교사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말과 대덕중학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덕인의 이상은 세계를 향하여'라는 학생상을 정립하고, 희망찬 내일과 알찬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덕중학교의 교육연구부장이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한국어학급의 담임 정현주입니다.

본교는 1981년 개교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글로벌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색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덕중학교의 교육목표와 특징은 무엇입니까?

대전에 위치한 대덕중학교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40여 년의 전통을 가진 학교입니다. '면학(勉學), 성실(誠實), 봉사(奉仕)'를 교훈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게 잘 갖춰진 교육환경에서 훌륭한 교육 시스템으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교학상장(敎學相長) 하는 배움터이자 꿈터입니다. 학생 모두가 글로벌 인재를 꿈꾸며 나날이 성장해 가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대덕중학교 교육 가족 일동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지난 2년(2019~2020년)에 이어 올해부터 다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정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로 선정되었고, 2013년부터 다문화 및 귀국학생 특별학급인 한국어학급(구 다문화예비학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리더 양성 및 세계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1994년부터 계속해서 일본 데라이중학교(寺井中學校)와 국제교류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상을 양성하기 위해 대덕-다빈치 창의융합인재양성 '열린 우리 꿈끼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덕밸리를 활용한 1학급 1연구소 결연 집중 탐구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연구소와의 결연 활동은 잠시 보류)

현재 대덕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교육 연구'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는 '공·공(학교 공동체, 다문화 공감, 세계시민의식 공유) Project' 운영을 통한 다문화 감수성 함양 및 세계시민의식 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연구주제로 연구학교를 운영하였고, 올해부터는 새롭게 '다행이다(다양성을 존중하며 행복을 함께 이루어가는 다문화 공동체) Project'를 통한 다문화 역량 및 세계시민의식 함양 방안이라는 연구주제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Project'는 총 3개의 연구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구과제1은 '함께 해서 다행이다'입니다. 본 과제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다문화마을교육공동체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학교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및 환경 조성, 다문화 마을교육공동체 인프라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 수업 공동체, 교사 학습 동아리, 다문화·세계시민 교사 동아리 등을 조직하여 교사들의 다문화·세계시민의식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계는 대전 유성구부터 시작하여 넓게는 대전 전체에 이르기까지 다문화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2는 '여기 모여 다행이다'입니다. 본 과제는 '다문화 및 비다문화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고 다문화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학생 및 귀국학생을 위한 특별학급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학생 및 비다문화학생을 위한 소통·공감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교과 및 동아리활동, 자유학년제 활동을 통해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어학급(다문화 및 귀국학생 특별학급)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친구사랑 선(善)말 선(善)을 달기, 정(情)데이, 친구사랑 3운동,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쓰기 등을 통해 다문화학생과 비다문화학생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과제3은 '우리라서 다행이다'입니다. 본 과제는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세계시민의식 인지도·사회적·행동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소식지 발행, 다문화·세계시민 게시판 조성, 온라인 실시간 국제교류



체험활동 실시, 실천 중심의 친환경 교육, 지속 가능한 발전을 꿈꾸는 '오감 체험활동을 통한 건강 식습관 업(up)'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및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및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의 가장 큰 장점은 다문화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여 실천 기반의 다문화·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한국어학급을 통해 다문화 및 귀국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기초학력 향상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활동으로는 지역에 있는 충남대학교와 SPC(School-College Partnership) 선도협력학교를 체결하여 한국어학급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대전 유성구청 및 지역 내 사회적 기업(씨오젠)과 함께 '다문화 감수성 레벨업'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또, 대전행복이음 마을교육공동체 씨앗동아리를 운영하여 교사들은 본 활동을 통해 배운 것을 자유학년제 프로그램과 교내 동아리 활동에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보다 더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활동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의 일환인 한국어학급에서는 오랜 외국 생활로 한국의 문화와 한국 학교의 생활을 알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한국어교육, 교과 지원 개별화 수업, 기초 튼튼 방과후학교, 미술치료, 상담, 사제동행 프로그램 등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및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운영하며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보다 다양하고 활동 중심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어려

웠고, 더 확장된 다문화마을교육 공동체를 조성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내년에는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며 더욱 다채로운 활동 계획을 세워나가려 준비 중입니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운영하며 어려웠던 부분은, 다양한 출신국에서 온 학생들과의 소통 문제입니다. 현재 대덕중학교 한국어학급에도 이집트, 독일,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미국 등에서 온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이 많이 차이 나고 있어 한국어교육에서의 힘든 점이 많습니다. 또, 외국인 가정의 경우 학부모님들과의 소통 및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해의 어려움, 그리고 한국어학급이 있는 중학교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부족하여 생기는 입장 차이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학급 입급 문의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드리지 못할 때면 고성과 협박 등의 악성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의 많은 도움과 이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교육부의 교육기본 통계 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다문화학생 수와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 학생의 증가 추세는 다문화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또, 자치 단체와 교육 당국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사춘기에 접어들어 다문화학생의 정체성 혼란 등은 학업중단을 증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들이 학교 현장에 나오기 전부터 이러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더 나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다면 다문화 학생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키우고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예향 기자 je_fragrance@korea.ac.kr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및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의 가장 큰 장점은 다문화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여 실천 기반의 다문화·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한국어학급을 통해 다문화 및 귀국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기초학력 향상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문화 탐방

이번 문화탐방은 서울공예박물관을 소개합니다. 안국동에 새로 문을 연 서울공예박물관은 서울시가 건립한 한국 최초의 공예 전문 박물관입니다. 공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한다는 목표 아래 모든 시대, 분야를 아우르는 전시가 펼쳐집니다. 이미 만들어진 공예품은 물론 공예품을 만드는 과정과 관련된 지식, 기록, 사람, 재료, 환경 등을 연구하는 기능까지도 수행합니다. 지금부터,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공예품들이 전시된 상설 전시관을 중심으로 서울공예박물관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 전시장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3길 4 서울공예박물관
-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휴관)
- 관람연령: 제한 없음
- 관람요금: 무료
- 전시문의: 02-6450-7000

※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관람안내
- 관람 전 서울공예박물관 홈페이지(<https://craftmuseum.seoul.go.kr>) 사전예약
- 회차별 관람시간 종료 후 입장 불가

공(工)·용(用)·예(藝)·지(智)의 가치가 깃든 <서울공예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은 공예품뿐만 아니라, 공예를 둘러싼 지식, 기록, 사람, 환경 등을 연구하고 공유한다. 공예가 지닌 기술적·실용적·예술적·문화적 가치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인정신이 깃든 솜씨로 창조되는 시간의 예술이라는 기술가치(工), 시대감각과 취향을 담은 유기체라는 실용가치(用), 기술과 예술의 합일적 창조 활동이라는 예술가치(藝), 시대정신을 담아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공통 언어라는 문화가치(智)까지, 공·용·예·지의 가치가 서울공예박물관에 깃들여 있다.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공예품들이 전시된 상설 전시와 함께 현대의 다양한 공예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획 전시까지 관람하다 보면 어느새 공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I 자연에서 공예로

전시 2동 2층에서 시작되는 1부 전시에는 고대부터 고려까지의 공예품이 전시되어 있다. 공예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왔다. 돌, 흙, 나무 등 일상적인 자연의 소재를 가공하는 도구를 발명하고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인류는 환경의 제약을 극복했으며, 일상생활을 편리하고 아름답게 꾸려왔다. 이는 곧 문명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광석이 금속공예품으로 만들어진 것도, 흙이 토기를 거쳐 도자가 된 것도, 나무와 전복이 나전칠기로 재탄생한 것도 모두 장인들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금속공예품들을 지나 도자 전시실로 넘어가면 '청자상감 구름과 학 무늬 매병'이 눈에 들어온다. 매병이라 불리는 이 기형은 고려 때는 '준(樽)'이라 불리었다. 매병은 감상용으로 사용되었지만 꿀, 기름 등을 담는 용기로도 사용되었다. 이 매병은 도자기의 밑감이 되는 흙(태토, 胎土)에 검은색과 흰색 흙을 박아서 학과 구름 무늬를 표현해낸 것이다. 입구는 음각으로, 아랫부분에는 번개무늬 띠를 상감하여 장식하였다. 이 매병은 고려청자 중 최상품의 청자가 주로 제작되던 전라북도 부안 지역에서 12세기 후반부터 13세기 전반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청자상감 구름과 학 무늬 매병,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77호

II 장인, 세상을 이롭게 하다

전시 1동 2층으로 건너가면 조선의 공예품들이 기다린다. 조선은 중앙집권 국가로서 개국 초기부터 법률을 통해 장인들을 관리해왔다. 조선의 장인들은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 아래 국가 행사에 대규모로 동원되어 공예품을 제작하기도 했다. 국가 의례에 필요한 공예품 제작은 국가로서의 기틀과 품격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한편, 민간에서 사용되던 일상용품 제작에도 장인들의 손길은 빠질 수 없었다. 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어낸 장인들의 존재는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다.

유교 사회였던 조선에서는 원칙적으로 화려한 장식을 멀리하곤 했다. 근검 절약을 중요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공예품은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 은근한 멋을 풍긴다. 조선 왕실 화원이었던 이택균이 그린 열 폭의 대형 '책가도(冊架圖) 병풍'을 보면 그 은근한 멋이 잘 드러난다. 서가에 책과 문방구, 도자와 고동기(古銅器) 등이 배치된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당시 상류층 지식인들의 공예 취향과 서책에 대한 관심을 잘 보여준다.



책가도 병풍, 이택균,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79호

III 공예, 근대의 문을 열다

3부에서는 대한제국의 공예품을 조명한다. 조선은 1876년 개항 이후, 밀려드는 서구의 제도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1897년에는 국호를 '대한'으로 선포하고 '구본신참(舊本新參)'의 개혁론을 내세운다. 옛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강건한 나라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사회 전반에 나타난 근대화의 흐름과 함께 전통 방식의 수공예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 영향으로 공예가 산업 기술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한성미술품제작소는 1908년, 대한제국 황실의 경제적인 후원으로 설립되어 황실용 기물들을 제작하였다. 설립 초기에 제작된 '은제 오얏꽃무늬 발'은 전통적인 기형에 근대적 도안과 기법을 융합해내었다. 황실의 제사 때 국물이 있는 음식을 담았던 그릇으로, 대한제국 황실의 상징문장인 오얏꽃과 함께 '만수무강(萬壽無疆)', '길상여의(吉祥如意)' 등 길상무늬가 음각된 것이 특징이다.



은제 오얏꽃무늬 발, 한성미술품제작소

IV 공예, 시대를 비추다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며 공예품이 관광 상품으로 주목받고, 자본가들이 공예품의 제작과 판매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 영향으로 공예품이 백화점이나 상점을 통해 유통되었고, 상표나 고유 마크가 일반화되며 산업공예의 면모가 본격적으로 갖추어졌다. 한편, 전진교육을 경험한 공예가들의 등장과 함께 조선미술전람회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전시회도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 순수미술로서 공예의 지평이 열렸고, 현대공예의 토대 또한 형성될 수 있었다.



나전칠 낚시하는 어부와 산수그림 사각상, 전성규

'나전칠 낚시하는 어부와 산수그림 사각상'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나전칠기 공예가 전성규의 작품이다. 흑칠에 나전으로 장식된 직사각형 상에 낚시하는 어부와 산수가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되어 있다. 왼쪽 상단에는 '今日得魚醒復醉 十年深悔一封侯'라는 시구가 새겨져 있다. '오늘 고기 잡아 술 깨고 다시 취하리. 십 년 깊이 뉘우쳐 한번 벼슬에 오르네'라는 뜻의 짧은 글에 은거하는 선비의 심경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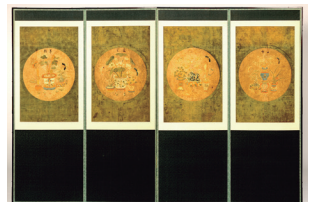
전시 3동 '사전가(絲田家)직물관'으로 넘어가면 자수와 보자기를 전시하는 상설전시관과 보이는 수장고가 자리하고 있다. '사전가'는 생전에 수집가이자 박물관장, 예술가였던 허동화의 아호이다. 허동화는 부인 박영숙과 함께 자수품과 보자기 수집에 일생을 바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직물공예품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1960년대부터 자수품, 보자기를 비롯해 전통 복식과 침선 도구, 실내 장식품을 꾸준히 수집했다. 함께 수집해 온 소장품 5천여 점이 서울공예박물관에 기증되었다.

I 자수, 꽃이 피다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실을 만들고 옷감을 짜왔다. 그런데도 5가지 이상의 색실을 사용하여 복잡한 무늬를 넣는 것은 7세기경에야 가능해졌다. 자수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어 자유롭게 무늬를 만들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직조보다 자유롭게, 입체와 평면을 넘나들 수 있음은 물론 크기와 표현 방식에도 한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본 전시에서는 허동화·박영숙 컬렉션 중에서도 자수 병풍을 회화적 관점으로 재조명한다. 그리고 일상생활 구석구석 마음을 담아 수놓은 문양의 의미와 자수 기법을 소개한다.

'자수 사계분경도'는 고려 후기, 폭마다 다른 꽃과 분재(盆栽)를 수놓아 만든 네 폭 병풍이다. 국내에 현존하는 자수 병풍 중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른쪽 첫 번째 폭부터 봄을 묘사한 꽃, 겨울을 상징하는 매화와 동백, 여름을 대표하는 연꽃, 가을을 의미하는 포도가 차례로 수놓아져 있다. 세 번째 폭에는 '夏蓮(하련)', 네 번째 폭에는 '草龍(초룡)'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여름 연꽃과 가을 포도를 비유한 말이다. 사각형의 그림에 직물로 테두리를 둘러서 만드는 일반적인 방법과는 달리 사각형 직물 안에 자수가 수놓인 원형 직물을 배치한 보기 드문 구도의 작품이다.



자수 사계분경도, 보물 제653호

II 보자기, 일상을 감싸다

네모난 형태의 직물을 일컫는 보자기는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부터 물건을 간편하게 들고 다닐 때, 선물을 장식할 때까지 널리 사용된다. 틀이 정해져 있는 가방에 비해 공간 활용에 제약이 없고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기까지 하다. '웃음보', '보쌈'과 같이 보자기에서 유래된 단어도 많은 만큼 보자기는 늘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였다.

전시 3동 3층에서는 궁중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화려한 문양이 있는 보자기에서부터 민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보자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자기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크기와 소재, 구성 방법 등의 차이에 따라 모두 다른 모양의 보자기가 완성되었다. 생김새만큼이나 용도도 다양했기에, 전시 마지막에는 보자기의 용도와 상황에 따른 묶는 법도 배울 수 있다.

19~20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문 보자기'는 직물 위에 다양한 색의 길상무늬가 그려진 홀 보자기이다. 보자기 가운데의 원형 안에는 봉황 한 쌍이 마주 보고 있고 주변에 원형으로 '壽(수)'자, 영지, 모란 무늬 등이 표현되어 있다. 두 모서리에 달린 끈에는 '壽'자, 영지 모양의 불로초, 꽃무늬가 그려져 있다. 이 보자기와 같이 직물 위에 직접 그림을 그려 무늬를 표현하는 화염(繪染) 방식으로 제작된 보자기들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인문 보자기

상설 전시를 모두 관람하고 밖으로 나오면 건물 안팎 곳곳에 설치된 공예품들이 눈에 들어온다. 현대의 여러 공예가와 협업하여 박물관 내·외부에 작품을 전시해두고 직접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 전시실 로비에 마련된 의자와 안내데스크, 건물 외벽의 장식과 휴게 의자까지 모두 하나의 작품이자 사용 가능한 공예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시실 속 유물들도 한때는 사람의 손에 쓰이도록 만들어졌던 직접 사용하고 만져볼 수 있는 공예품이 곳곳에 있다는 게 소중하게 느껴진다. 작품들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사용하다 보면 공예가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지 어느새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